

국내 공공미술 사업의 건축적 경향**

- 국내 건축가가 단체로 참여한 2000년 이후의 사업을 중심으로 -

Architectural Tendencies of Public Art Projects in Korea

- Focused on Those in Which Korean Architects Participated in Group after 2000 -

Author 박솔기 Park, Seul-Ki / 정희원,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
김란수 Kim, Ransoo / 정희원,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부 부교수, 건축학 박사*

Abstract This study tried to inquire architectural tendencies in public art projects by analyzing projects and public art works designed by Korean architects. First, it described not only the background and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but also the scope and the methods of it. Second, it gave an overview of public art by explaining the concept, the institutions, and the history of it in Korea. Third, it investigated the contents of public art projects in Korea, in which more than two architectural teams participated, analyzing the tendencies of public art works designed by architects. In order to find the architectural tendencies of public art projects, it analyzed the intentions, the contents and the expressions of architects' art works. In conclusion, this study regarded the architectural tendencies as site-specific, space-experiencing, sheltering, multi-purposeful, contextual, recycling, and eco-friendly.

Keywords 공공미술 사업, 국내건축가, 장소 특정적, 조형물
Public Art Project, Korean Architect, Site-specific, Art Work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0년 이후 국내 도시 관련 전반에서 공공성이 화두가 되면서 공공미술 사업이 증가했다. 이전까지는 '건축물미술작품제도'로 강제적으로 미술작품이 설치되었던 공공미술의 영역에서 2006년 <아트 인 시티> 사업을 계기로 정부 및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 공공미술 사업이 연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서울시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추진한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사업에 젊은 건축가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여러 매체를 통해 작품을 소개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미술가 혹은 기획자 집단이 주로 참여했던 공공미술 분야에서 건축영역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간 국내건축가가 공공미술 사업 참여한 실적은 2000년대의 참여율의 다섯 배에 달한다. 이와 더불어 공공미술을 포함한 공공사업과 관련된 건축 전시

및 강연 등의 행사도 빈번히 열리고 있다. 이는 건축과 관련된 공공미술에 대한 대중의 호응이 점차 증가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배경 하에서 건축가가 국내 공공미술 사업에 참여하면서 달라진 양상과 그 기여한 바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공공미술과 관련된 선행 연구의 주제는 건축물미술작품제도부터 환경조형물, 공공미술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그러나 공공미술이 가지는 장소 특정적 속성은 건축적 접근방식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적 관점에서의 공공미술 사업에 관한 연구는 제외되어 있었다. 특히 건축가들의 공공미술 작품 분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건축가가 참여한 국내의 공공미술 사업 내용과 여기서 건축가가 작업한 공공미술 작품을 조사 분석하여 국내 공공미술 사업의 건축적 경향과 그 기여한 바를 파악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 건축가가 2팀 이상 단체로 참여한 국내 공공미술 사업 내용과 여기에 참여한 건축가의 작품을 분석했다. 이와 관련된 자료 수집을 위해 공공미술과 관련한 선행연구 문헌, 공공미술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kimransoo@mju.ac.kr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과제번호: 2012R1A1A1012695)

사업 출판물, 건축가의 작품이 게재된 건축 잡지, 언론 기사, 그리고 해당 공공미술 사업의 관련 웹 사이트와 건축사사무소 홈페이지 등을 조사했다. 이런 자료를 기반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서술했다. 2장에서는 공공 미술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과약을 위해 공공미술의 개념과 국내에서의 관련 제도 및 건축가가 참여했던 국내 공공미술 사업에 대한 내용을 분석했다. 3장에서는 연구 대상인 국내건축가 2팀 이상이 참여한 각 공공미술 사업의 내용을 조사하고, 여기에 참여한 국내건축가의 공공미술 작품을 분석했다. 각 사업에서의 건축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건축가의 작품을 작품의도, 작품내용, 작품표현의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4장 결론에서는 2장과 3장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국내 공공미술 사업의 건축적 경향을 정리했다.

2. 공공미술 개념과 국내에서의 변천과정

2.1. 공공미술의 개념

공공미술의 사전적 정의는 ‘대중들을 위한 미술’¹⁾이며,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어 일반 대중이 관람하는 미술 작품을 지칭한다. 이것은 지정된 장소에서의 설치미술품이나 장소 자체를 위한 디자인 작품을 포함하기 때문에 장소와 결합하는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장소 지정형 미술(site-specific art)’²⁾이란 개념도 내포한다.

공공미술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 시기는 영국의 미술 행정가인 존 윌렛(John Willett)이 정부에 공공미술 자문위원 임명을 제안했던 1976년으로 본다. 존 윌렛은 그의 저서 ‘도시 속의 미술(Art in a City)’에서 ‘소수만이 미술을 즐기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³⁾고 주장하면서 공공미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공미술의 의미는 국가마다 차이를 보인다. 프랑스에서 이 용어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며 국가의 지원 아래 이루어지는 미술품’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미술은 대부분이 도시에 설치되며, 조각, 벽화, 스트리트퍼니처(street furniture), 도로 포장(paving), 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를 포괄한다. 프랑스의 라빌레트 공원 안에 풀리 구조물이 등장하면서 스트리트퍼니처 외에도 내부 공간이 있는 구조물과 소형 건축물도 공공미술품의 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었고, 따라서 그 개념의 경계가 확장되었다.

2.2. 국내 공공미술 관련 제도 및 정책

국내 공공미술의 제도 및 정책의 시기별 변화는 <표

1>⁴⁾과 같다. 여기에서 국내의 공공미술 제도 및 정책에 관한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2000년 이전에는 도시문화 환경 개선과 문화예술 진흥을 목표로 한 건축물미술작품제도가 있었다. 둘째, 2000년대 이후에는 뉴 장르 공공미술의 형태로 시행된 공공미술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표 1> 국내 공공미술 제도 및 정책 시기별 변화

시기	제도 및 정책 변화
해방이후-1970년대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일종의 퍼센트법),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조항 신설
1980년대	1984년 건축물미술장식제도(현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서울시 의무화(1993년 다시 권장사항으로 변경)
1990년대	1995년 건축물미술장식제도(현 건축물미술작품제도)가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
2000년대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미술에 대한 관심확대를 통한 다양한 사업의 대규모 진행

<표 2>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역사

구분	시기	주요 제도 내용
권장시기	1972-1994	문화예술진흥법 근거조항의 마련, 설치 권장
의무화 시기	1995-1999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전국 설치 의무화
규제 완화 시기	2000-2011	규제 완화 차원에서 설치비용을 건축비 1% 이상에서 1%이하로 낮춤
기금제 도입기	2011-현재	‘미술장식’이라는 용어가 ‘미술작품’으로 변경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선택적 기금제 도입

(1) 건축물미술작품제도

‘건축물미술작품제도’란 연면적 1만㎡ 이상 신·증축하는 일정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거나 직접설치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한 제도⁵⁾를 말한다. 1972년 도시문화 환경 개선과 문화 예술진흥을 목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에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조항]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이 제도는 <표 2>⁶⁾와 같이 권장시기와 의무화 시기, 규제 완화 시기, 기금제도입기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2) 공공미술 사업

한국 정부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동안 ‘문화예술의 해 사업’⁷⁾을 시행했다. 사업의 마지막 해인 2000년은 밀레니엄을 맞아 ‘새로운 예술의 해’로 국가적 차원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공공미술 연례보고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참조

5) 공공미술포털(www.publicart.or.kr)

6)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미술기획경영연구소, 2012

7) 91년 연극의 해, 92년 춤의 해, 93년 책의 해, 94년 국악의 해, 95년 미술의 해, 96년 문학의 해, 97년 문화유산의 해, 98년 사진영상의 해, 99년 건축의 해, 2000년 새로운 예술의 해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예술의 해 사업 종합평가 및 대안 모색, 2000

1) 두산백과

2) Malcolm Miles, 2000, p.21

3) Willett, J., 1967, Revised in 2007

에서 대중성, 지역성에 대한 공공미술 논의를 포함해 새로운 예술⁸⁾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이 시기에 기존 미술장식제도의 문제와 한계를 본격적으로 인식하면서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과거 국가의 이데올로기 전파 하에 관이 주도했던 비자발적인 이전의 공공미술과는 차별화되는 공공미술의 형태가 2000년대 초창기에 등장했다. 오브제 형태의 전통적인 공공미술에 한계를 느낀 젊은 기획자(집단)들이 공공미술 프리즘, 플라잉 시티, 퍼포먼스 반지하 등 자생적으로 다양한 실험을 통해 공공미술을 주도해나갔다.⁹⁾

2005년에 한국공공디자인학회가 설립되었고, 2006년에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2006년 문화관광부가 주최한 ‘아트 인 시티’ 사업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진행되고 있는 ‘마을미술 프로젝트’도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지자체의 문화재단에서도 도시 활성화 수단으로 2005년부터 격년으로 시행되고 있는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와 서울문화재단의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인천의 ‘지역공동체 문화 만들기 사업’ 등이 있다. 현재에는 여러 주체들이 전국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공공미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3. 건축가가 참여한 국내 공공미술 사업

국내건축가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한 공공미술 사업에 참여한 최초의 작품은 김종업의 ‘올림픽기념 상징조형물’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1984년에 ‘올림픽기념 상징조형물 건립추진계획’을 발표하여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상징조형물 건립과 시내 주요 가로에 올림픽행사와 관련한 새로운 환경조형물 조성계획을 확정지었다. 공모를 통해 최종적으로 건축가 김종업의 안이 당선되었다. 그 이후 1990년대에는 공공미술 작품이 대거 등장하였으나 건축미술작품제도에 의한 조각 및 조형 작품과 도시 미화 차원의 벽화가 대부분이었고, 건축가의 작품은 거의 없었다.



<그림 1> 올림픽기념상징조형물 (김종업,1988)

8) 이 사업에서 의미하는 ‘새로운 예술’은 기존 예술 장르 내에서의 실험적이며 독창적인 표현행위를 의미하는 동시에 장르 간의 통합과 장르 내의 분화 등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예술, 첨단과학 또는 산업과의 만남을 통해 새롭게 창조되는 장르의 예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생활 속의 예술, 환경 친화적 예술 등을 모두 포함하는 열린 개념이다. 김유진, “2000년 이후 한국 공공미술의 지형변화,”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석학논문, 2013

9) 윤태건, 2010, p.138

<표 3> 시행주체별 국내건축가가 참여한 공공미술 사업의 분류

시행주체	공공미술 사업명	사업 년도	건축가 참여년도
정부	마을미술프로젝트	2009-	2011-2013
정부 산하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도시공원 예술로	2012	
	자연과 미디어 에뉴알레	2013	
지방자치단체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2005, 2007, 2010, 2014	2005, 2010, 2014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2007-2012	2007-9, 2011-12
	광주폴리	2011(I), 2013(II)	
	광주사직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	2012	
민간 및 기타	에이퍼맵(APMAP)	2013-2014	

건축가의 작품이 공공미술 분야에서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은 2000년대에 정부 및 지자체가 대규모 공공미술 사업을 활성화하면서 부터이다. 국내 건축가가 참여한 사업을 시행주체에 따라 정부, 정부 산하기관, 지자체, 민간 및 기타로 분류하면 <표 3>과 같다. 그리고 <표 4>에서는 국내건축가가 참여한 공공미술 사업을 사업대상지와 주최, 사업의 내용과 특성으로 항목을 나누어 정리했고, 각 사업을 시행주체별로 나누어 그 특성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 추진 공공미술 사업인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사업대상지 범위와 규모가 가장 크다. 한국형 뉴딜 정책의 일환인 이 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대부분이 문화소의 지역인 시골 마을에 집중되어 문화예술을 관광자원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그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목적이 있었다. 이 사업에서 건축가들은 주로 기존의 폐옥이나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정부 산하기관 추진 사업으로는 ‘도시공원 예술로’와 ‘자연과 미디어 에뉴알레’가 있다. 공공미술 사업에 관한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정부 산하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이 분야의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고, 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이 두 사업 모두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시행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공공미술 형태를 보여주었다. ‘도시공원 예술로’는 도시공원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해당 공원의 설계, 스토리텔링, 공공미술 작품의 설치, 운영 프로그램 등 총괄적인 기획을 공모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자연과 미디어 에뉴알레’는 미술, 건축, 그리고 공공미술에서 생소한 분야인 과학 분야를 융복합화 하여 다원적이고 실험적인 공공미술을 시도함으로써 공공미술의 경계를 확장했다고 볼 수 있다.

지자체 추진의 공공미술 사업으로는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광주폴리,’ ‘광주사직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가 있다. 이 사업들을 진행한 지자체는 안양시와 서울시, 광주광역시였다. 이 사업들의 대상지로는 각 지자체의 공공공간으로서 주로 도시 내의

<표 4> 2000년 이후 건축가가 단체로 참여한 국내 공공미술 사업

사업명	기간	대상지	주최	내용	특성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2005	안양예술공원	안양문화예술재단	건축, 조경, 미술 등이 결합된 공공예술 도입	새로운 형태의 조각공원
제3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2010	학운공원 등			주민참여를 위한 참여프로그램 위주
제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2014	안양예술공원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2007-12	서울시 내	서울특별시	도심 속 일상에서 예술 향유	다양한 공공미술 형태 도입
광주폴리 I	2011	광주시 내	광주광역시	광주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담은 폴리 설치	국내외 건축가 참여
광주폴리 II	2013				건축가와 예술가, 소설가간의 협업
2011 마을미술프로젝트	2011	경북 영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의 예술 향유 기회 제공 및 미술을 통한 마을재생	대규모 미술마을 조성
2012 마을미술프로젝트	2012	제주 서귀포			
2013 마을미술프로젝트	2013	강원도 정선			
광주사직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	2012	광주사직공원	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한 문화테마 공원 조성	국내 차세대 건축가 참여
도시공원 예술로 프로젝트	2012	부산 흥터문화공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작품 설치와 도시공원 조성	건축가가 기획자로 참여 협업 파트너로 건축가 초청
		충남 금성배수장			
자연과 미디어 에뉴알레	2013	제주 김녕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연을 주제로 공공예술 표현	건축, 예술, 과학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
2013 에이피맵(APMAP)	2013	경기도 오산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전국을 순회하며 작업현장을 직접 20여개는 현대미술 릴레이 전시	예술가에 의한 일상작업공간의 예술공간화 작업
2014 에이피맵(APMAP)	2014	제주 서광다원			

<표 5> 국내건축가의 공공미술 작품 유형 (2000년 이후 건축가가 단체로 참여한 공공미술사업)

사업명	건물		구조물			시설물				디자인			기획		계	
	임시건축물	리모델링	건축	파빌리온	기능성	조형	버스정류장	벤치	교문	놀이시설	조형물	평면작품	가로포장	공간가구		공원
제1,3,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2			1	2						1			2		9
2007-2012 서울시 도시갤러리					3	1	4	1			2	1			2	14
광주폴리 I & II					2	1					1					4
2011-2013 마을미술프로젝트		1	2		3			1								7
광주사직공원 공공예술 프로젝트		1		1	2							1				5
도시공원 예술로 프로젝트									1					2		3
자연과 미디어 에뉴알레				1	1			1			1					4
2013-2014 에이피맵(APMAP)				1	1					1						3
총 계	2	2	2	4	14	2	4	3	1	1	5	2	1	2	2	49
	4		22			9				10			4			

낙후 지역 혹은 구도심이었으며, 이곳의 재활성화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런 공공미술 사업들은 안양, 서울, 광주가 문화예술 도시로서 알려지는 데에 기여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안양의 경우에는 시작단계에서는 조각공원 수준을 의도하였으나 기획과정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도시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발전했다. 광주광역시도 이전부터 광주비엔날레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 이미 문화예술, 디자인 관련 행사 등으로 특화된 도시였으나 광주폴리와 광주사직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를 통해 해외의 다양한 매체에 소개되면서 주목받게 되었다.¹⁰⁾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를 통해 버스 정류장과 같은 길 위의 일상적인 가로시설물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주목받고 이런 길 자체도 명소가 되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지자체 추진 공공미술 사업에서 건축가의 작품들은 주로 도시 기반시설이며, 랜드마크적 조형물(폴리)에서부터 공원 시설물, 스트

리트 퍼니처 등의 공공구조물과 옹벽 디자인까지 넓은 범위의 유형을 보여주었다.

민간 및 기타가 추진한 공공미술 사업에는 '에이피맵'이 있다. 에이피맵은 일상의 업무를 하며 볼 수 있는 야외 공간에 작품을 주로 설치하여 일상과 예술의 경계 허물어뜨리기를 의도했다. 또한 신진 작가 육성과 창작활동 지원을 의도하여 젊은 건축가들을 참여시켰고 공공성보다는 예술적 개성이 드러나는 작품을 선보였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건축가 2팀 이상이 참가한 공공미술 사업은 8종류 (17건)였으며, 건축가가 작업한 작품은 49개였다. 공공미술 사업에 건축가가 참여하면서 달라진 경향은 <표 5>의 건축가의 작품 유형에서 나타난다. 건물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건축가는 다른 예술가들에 비하여 공공미술 사업에서도 건물, 구조물, 시설물 등의 구축에 강점을 보인다. 공공미술 사업은 기존의 감상을 위한 오브제 형태의 미술 영역에서 공공건축과 공공공간 디자인, 공공시설물디자인 등의 영역을 포함하게 되면서 기존의 조형물 중심의 정적인 공원 행태에서 벗어나 '공공장소 속의 미술(Art in Public Places)'로서 공공 장소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10) 2013년에는 독일 미술 전문 출판사 HatjeCantz에서 'Gwangju Folly II 2013'에 대한 프레젠테이션과 도록 출판 기념회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광주폴리II의 총감독 니콜라우스 히르쉬와 큐레이터 필립 미셀비츠, 참여작가 잉고 니어만(Ingo Niermann), 에yal 와이즈만(Eyal Weizman) 등이 참여했다. 이 외에도 UIU Universes in Universe), Metalocus, BLOUIN ARTINFO 등의 해외 인터넷 언론매체에 게재된바 있다. 광주사직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의 참여 작품 중 하나인 조민석의 '빈집(Vacant House)'이 2012년 이탈리아 건축잡지 'Domus'에 소개된 바 있다.

<표 6> 국내 건축가의 공공미술 작품 분석 (2000년 이후 국내건축가가 단체로 참여한 공공미술사업)

년도 사업	참여 건축가	작품명	작품의도	작품내용	작품표현
2005 제1회 안양공예미술프로젝트	헬렌박	장소성/비장소성	유기적 관계 속의 장소성	휴식 및 전망의 다목적 목조구조물	중첩된 목재막스와 루버에 의한 다양한 시지각 경험
	박인수	헬캠 캐노피	공원으로의 동선 유도	철재지붕과 목재 데크의 평상	인근 현수교 폐자재 재활용
	신호근	뿌리	휴식을 통한 재생	조적식 벽돌로 벤치와 그늘공간 조성	숲의 나무뿌리를 나타내는 사선 형태의 벽
	김희성 & 황재연	일시전시공간디자인	효율적 전시를 위한 임시전시공간	철재컨테이너박스로 만든 임시건축물	천막 등 일시적 재료 사용
2010 제3회 안양공예미술	조민석	오픈파빌리온	정자의 현대적 재해석	호 형태의 철재파이프를 엮은 다목적 구조물	스튜디오와 같은 내부지향적 공간
	신혜원	자율방범대신축프로젝트	동네의 개성과 사용자의 요구사항	컨테이너박스로 초소 신축	동네의 개성 및 특성을 고려한 입면 디자인 및 공간 설계
2014 제4회 안양공예미술프로젝트	신혜원	프로그램의 공간화	파빌리온 공간을 프로그램화	프로그램에 맞추어 공간 기획 및 시설물 설치	통합을 주된 모티브로 사용, 카드보드로 가구제작
	SOA	예술을 읽는 가구와 공간 사이	공공예술의 도서관 개념	도서관 가구 제작과 비치될 도서 100권 선정	색다른 자세로 독서할 수 있는 물음표 형태의 유선형 가구
	SOA 외 2팀	3X3 City	안양신도시 구축과정의 결과	세가지 소주체에 따른 연구와 연구자료의 시각화	시내버스 정류장 5곳의 광고판에 시각화 된 연구자료 게시
2007 서울시도갤러리프로젝트	지승은	문의 풍경	지하철 역사 공간 환기	지하철 역사 환승로 벽에 철판가공물 설치	다채로운 색상 도장을 통해 공간에 생기 부여
	이영조	지하도	과거와 현재의 공존	강화유리를 덧댄 현대적인 동십자 문양의 벽	기존 벽과의 대비를 통한 역사문화적인 맥락 고려
	신승수 외2인	인왕산에서 굴러온 바위	광화문과 연관된 시민들의 기억수집	철 구조물에 돌을 쌓아 만든 조형물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 SNS 등 시민들의 메시지 전달
	김남훈	투명 변조기	역사문화재와의 시각적 교류	내부가 돌린 원통을 쌓아 만든 담장 구조물	사적단을 향하는 시야확보를 위해 투명한 재료 사용
	최옥	아트 버스 쉼터	경희궁담장의 장소성 복원	스틸파이프를 세워 만든 벽과 지붕의 버스정류장	전통적인 곡선미와 현대적 재료 및 색상의 대비
	하태석	플로우	도심의 역동성	폴리카보네이트,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버스정류장	사각 박스를 길의 방향에 따라 10개의 루프로 해체
2008 서울도시갤러리프로젝트	양수인 외1인	리빙 라이트	대기오염에 대한 공공의 인터페이스	돔 형태의 구조물 내에 아크릴패널, LED 설치	대기오염에 대한 정보를 조명 및 실시간 문자 서비스를 통해 전달
	김광수	색동 벽 사이로	장소의 정체성 구현	교문 역할의 구조물 설치	착시현상을 위해 구조물에 여러 오프닝과 거울 설치
	민선주	바다, 나비 그리고 배	소통과 화합을 위한 학교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휴게공간 등 조성	기존 삭막한 공간에 목재를 사용하여 친근한 이미지로 전환
2009 서울도시갤러리프로젝트	박현진	하늘 아래 첫 동네	난곡달동네 풍경 재현	공원 내 놀이 및 휴식을 위한 철골 구조물	달동네를 연상시키는 연속되는 집 형태 구조물
	김광수	100개의 알 수 없는 방	사진과 장소인식성에 대한 실험	참여자의 사적, 예술공간을 각각 배경으로 한 사진들의 병렬 전시	인터넷 쇼핑물을 통해 참여자 모집, 참여자 당 3개의 액자 전시
	서승모	도시전화	도시전화 방법론	관람객이 뿌린 씨앗을 키우고 자란 컨테이너 화초를 다시 나누어주는 작업	서울 도시모형의 지형 패턴에 맞추어 건축물 대신 화초씨앗을 배치
2011 서울도시갤러리	최순용	회화적 몽타주	도심 속 캔버스	노출콘크리트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 행인, 자연 등을 활용한 몽타주
	장수정 & 모잇	쉼터 오브 메모리즈	벽돌에 얽힌 기억 수집	조적식 벽, 철판 캔틸레버구조의 버스정류장	인근 재개발 지역 벽돌 재활용
2011 광주폴리	승효상	푸른길문화센터	문화적 역할의 도시하부구조물	다리과 공원을 연결하는 계단 구조물	인근 폐선된 철로를 연상시키는 재료 사용
	조성룡	기억의 현재화	광주의 잊혀진 기억 회상	번화가 바닥에 콘크리트 언덕 조성	공간환기를 위한 일종의 돌움장치 역할
	정세훈 외1인	열린 장벽	광주음성의 복원	보행자 도로 위에 설치된 철제 조형구조물	상부에 옛 광주음성의 흔적을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
2013 광주폴리II	고석홍 외1인	기억의 상자	광주시민들의 추억 보관	시민들의 추억이 담긴 물품들의 보관 및 전시	전시를 위해 보관함의 전면부를 투명하게 제작
2011 마을미술프로젝트	김지호	빈집 갤러리 마루	시간변화에 따른 집과 자연의 동화	오래된 한옥을 한옥정원으로 조성	외부 식재의 건물 유입이 용이하도록 골조만을 남겨두고 해체
	와이즈건축	바람의 카페	바람과 풍경이 흐르는 공간	기존 한옥을 카페로 리모델링	대나무를 엮어 한옥 전면부에 지붕, 벽구조물 설치
	와이즈건축	구 마을회관 대담	공간적 결속력	구 마을회관 외벽에 설치된 대나무로 엮은 담	직조방법으로 리모델링된 대나무 사용, 전시기획으로 이용가능한 그리드 외벽
2012 마을미술프로	김종대	유토피아 커뮤니티 센터	오래된 주택에 대한 스토리텔링	오래된 주택을 커뮤니티센터로 리모델링	외벽에 건물의 역사와 관련된 문구 삽입, 제주 현무암으로 만든 돌담 설치
	유한짐	사:집 프로젝트	장소성과 맥락성의 복원	건물 외부를 둘러싸는 철망 구조물	구조물의 기단부에 제주 현무암 활용
2013 마을미술프로젝트	일구궁공 도시건축사사무소	소금강 전망대	십원의 시선으로 본 화암마을 풍경	소공원 내에 산책로로서의 전망대	전망 목적의 인공적인 산책로 지형 연출
		닝쿨터널	자연과 자연현상의 감지	박 닝쿨터널 내에 휴게벤치 설치	일반 벤치에 비해 긴 길이의 벤치

2012 광주 직 공 원 공 예 술 프 로 젝 트	신혜원	흐르는 풍경	단절된 공간의 연결	기존 콘크리트 스탠드 일부를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조성	부드러운 곡선과 공간 내부에 목재를 사용하여 친근한 이미지 전달
	조민석	빈 집	모두가 주인이 될 수 있는 빈 집	친밀하 스케일의 전통한옥과 같은 중정형 파빌리온	다양한 기하학 형태의 오프닝
	박동준	흔적	오래된 건축적 흔적의 복원	노후화 된 공원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건물 전면부에 유선형 캐노피 설치
	이민아	기슭	산책로들 간의 관계의 재해석	공원 산책로의 바닥과 조경 디자인	돌, 블록, 타일 등의 다양한 재료를 바닥에 사용
	김영준	스텝	다층적 접근과 이벤트의 발생	경사지에 설치된 철근콘크리트 계단 구조물	계단참마다 소규모 쌈지공원 마련
2012 도 시 공 원 예 술 프 로 젝 트	와이즈건축	홍터둔병 프로젝트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의 둔병	아트센터와 연계되는 예술 공원 조성	공원 내에 상징적인 두렁길과 둔병 계획
	노말타입(기획자) + 건축가 최춘웅	소행성G	재난시설물의 장소(topos)화	배수장 내에 산책로 데크와 파빌리온 설치	수평적인 경험을 구체화하여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을 형성
	SOA	컬렉티브 스윙	우연적 만남과 순간의 공유	루프형 벤치이자 그네 놀이시설물	8개의 면이 서로 마주보는 그네
2013 자 연 과 미 디 어 에 뉴 알 레	네임리스건축 외 2팀 / 건축가 외	풍류	풍력의 시각화	각각 현무암과 스테인리스 스틸판으로 구성된 마주보는 두 벽	바람에 의해 회전하며 반사하는 스틸판으로 풍력에너지의 시각적 체험
	하태석 외 2팀 / 건축가 외	사랑담	제주도 당신앙의 현대적 재해석	생물발광 미세조류를 이용한 자연조명 파빌리온	당 신앙을 바탕으로 사랑을 주제로 한 공간적 커뮤니티 형성
	양수인 외 2팀 / 건축가 외	바람이 들려준 이야기	바람 현상의 기록과 해석	벤치로도 이용가능한 나팔 형태의 녹풍기구	하루동안 기록된 풍량을 5분으로 압축하여 음악으로 재구성
	와이즈건축 외 2팀 / 건축가 외	탕	제주도 용천수의 재해석	해양염분차발전에 의해 조명기구 가동	과거 용천수를 보호하기 위해 쌓았던 돌담을 원형의 돔 구법으로 설치
2013 에 이 피 맵	AnLstudio	SOLIDification	비구축 재료에 의한 구축	PEX파이프를 이용한 파빌리온	불명명한 경계와 면보다는 선을 강조
2014 에 이 피 맵	SOA	25계단	풍경의 확장	거울면으로 된 정육면체 계단	작품 하부에 제주화산석을 가려 불투명한 인상 연출
	김찬중	AIR-CUP	다원을 조망하는 새로운 관점 제시	녹차밭에 설치된 컵 형태의 소형 전망대	외관의 철 파이프 사이로 바람과 풍경이 투과

3. 국내공공미술사업의 건축 내용과 경향

국내 공공미술 사업에서의 건축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표 6>에서는 국내건축가가 작업한 공공미술 작품 49개를 작품의도, 작품내용, 작품표현으로 항목을 나누어 분석했다. 국내 건축가의 건축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첫째, 건축가 이외의 직업군이 참여한 공공미술 사업의 경우에는 국내건축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유형 혹은 기능을 가진 타 직업군 혹은 국외건축가의 작품을 비교하여 국내 건축가의 작품에서의 특징을 파악하려고 했다. 둘째, 각 사업에 참여했던 건축가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전체적인 건축 경향을 찾으려고 했다.

3.1.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건축 작품 특징



a) 웰컴 캐노피

b) 놀이터

<그림 2> 3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참가작품-1

안양시 도시계획의 일환인 이 사업은 초기의 공공예술 공원화 계획 취지에 따라 공원 안의 설치작품 위주로 시작되었지만, 이후에는 안양 시내로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나가는 프로젝트로 전환되었다. 1회 참여 작가들은 각 주제를 가진 공원 내의 10개 구역에서 조형물 또는 시설물 등을 설치했다. 그 중 건축가 박인수의 <웰컴 캐노피>와 가구디자이너인 안수연과 오세환의 <놀이터>는 둘 다 기능 위주의 시설물이지만 작품 표현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건축가는 인근 계곡에서 절거한 현수교의 폐자재들을 활용하고 마름모꼴 패턴의 지붕이 있는 평상을 둠으로써 쉼터 공간을 조성했다. 건축가는 재료 선택과 시공 과정에서 대지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것에 반하여 디자이너는 주변 자연 맥락에 대비되는 작품의 차별성과 독특함에 중점을 두었다.



a) 자율방범대신축초소



b) 방방

<그림 3> 3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참가작품-2

건축가가 주변의 맥락을 고려하여 디자인하거나 주변의 자연요소를 작품의 일부로 포함하여 설치하는 경향은 다음의 건축 작품에서도 나타난다. 헬렌박의 <장소성/비장소성>은 휴식, 전망대, 임시 전시공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용 구조물로서 외벽과 내벽 사이에 있는 기존의 나무와 경사진 대지를 그대로 유지한 채 구축했다. 건축가 신효근의 <뿌리>는 작품 주변에 있는 나

무의 뿌리 형태를 모티브로 하며, 자연스럽게 뻗어나간 조적식 벽들은 그늘과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건축가 김희성과 황재연의 <일시전시공간디자인>은 다목적 공간인데, 기존의 나무를 제거하지 않고 전시장을 통과하게 됨으로써 그 자체를 전시장의 일부로 활용했다.

3회에서는 국내건축가 팀 이외에도 국외건축가 팀도 참여했는데, 국내건축가들이 모두 <자율방범대 신축 초소>와 <오픈 파빌리온>과 같은 실질적인 건축설계를 한 반면에 국외건축가 팀은 실험적인 작품을 시도했다. 독일의 건축가그룹 라움라보어(Raumlabor)는 특수 설계된 트럭에 설치된 매달린 막을 팽창시켜 6m 높이의 대공간을 만들어내는 이동형 구조물인 <방향>을 디자인하여 이벤트 공간을 창출했다. 테디 크루즈(Teddy Cruz)의 <우리 동네의 미래>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주민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작된 동네의 모형이지만, 단순한 모형을 넘어서서 다양한 소통을 위한 사회 참여적 도구로서의 측면을 제시했다.

3.2.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의 건축 작품 특징



a) 지하도



b) S-Speed Back! 그 곳

<그림 4>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참가작품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는 도심 내 공공장소에 미술 작품 설치를 통해 문화적인 서울의 이미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건축가 이영조의 <지하도>와 판화가 정원철의 <S-Speed Back! 그 곳> 두 작품 모두 도시 지하보도를 예술적인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작업이었다. 두 작품 모두 삭막하고 침침한 지하보도의 공간에 역사적 장소성을 염두에 둔 예술적 개입을 통해 색다른 생동감을 전달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지하도>는 작품이 설치되는 벽 이외에도 작품과 연결되는 천장 부분도 작품의 일부로 간주하여 공간 자체를 변모시킨 데에 반하여, <S-Speed Back! 그 곳>은 지나가면서 감상할 수 있는 예술 벽화 형식으로 되어있다.

건축가는 이와 같이 미술작품 설치를 통해 단순한 감상이나 기능을 넘어서서 새로운 공간체험을 의도하는데, 이런 경향은 다음의 작품에서도 나타난다. 건축가 지승은의 <문의 풍경>은 철관을 삼각형의 면으로 가공한 뒤 다양한 색채를 도장한 설치물로서 일종의 게이트의 역할을 하며, 환승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공간체험을 하게 한다. 건축가 최욱의 <아트 버스 쉼터 (The

Art Bus Shelter)>는 서울역사박물관 앞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으로서 옛 경희궁의 담이라는 상실된 장소성을 현재에 복원하려는 시도를 했다. 평면 사각형에 곡선을 그려 넣고 접으면서 생기는 휘어진 벽과 지붕 공간 사이사이에 틈을 만들어내고 공간의 안과 밖이 연결되는 공간 체험을 제공했다. 건축가 하태석의 <플로우(Flow)>는 단순한 버스정류장 시설물이 아닌 주변의 역동적 공간 체험을 배가시키는 장치였다. 이것의 형태는 흐르는 강과 같은 유연한 곡선의 길이 있는 메카닉의 거리 공원과 이어지며 시각적 역동성과 시간의 흐름을 담아내고 있다. 건축가 최순용의 <회화적 몽타주>는 작품 그 자체보다는 사람들이 이 작품 안에 삼입되었을 때 몽타주 기법에 의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됨을 보여준다. 캔버스를 연상시키는 흰색 프레임 안에 보이는 지나가는 행인들의 모습과 그 배경이 되는 남산의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장면이 한 점의 회화 작품으로 보이는 체험을 준다. 건축가 김남훈의 <투명 변조기>는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의 담장과 건물 일부의 외벽을 속이 빈 원통을 적층함으로써 대체했다. 단순하고 경쾌한 동그라미가 모여 있는 투명한 공간과 다채로운 색상은 어린이 도서관에 어울리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문화재인 사직단 옆에서 과거와 현재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느끼도록 유도했다. 건축가 김광수의 <색동 벽 사이로>는 서울중동초등학교의 교문을 새롭게 디자인한 작품이다. 건축가는 평면상에서 사선방향으로 다양한 컷팅을 하여 오프닝을 만든 후 다시 남겨진 면을 반대 사선방향으로 컷팅하여 또 다른 오프닝을 만들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던 기존의 벽면에 스테인리스 미러 벽을 설치하여 50cm 깊이의 벽면과 색동 벽 사이 공간을 오가며 끝없는 문을 넘나드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3.3. 광주폴리의 건축 작품 특징



a) 기억의 상자

b) 투표

<그림 5> 광주폴리II 참가작품

폴리(folly)는 전통적으로 조경의 영역에서 쓰이던 용어로, 정원 설계에 포함되는 프로그램이 없는 독특한 형태의 소규모 건축물을 의미하는 단어였다. 현대건축에서 본격적으로 폴리가 등장하게 된 계기는 베르나르 추미(Bernard Tschumi)가 프랑스 라빌레뜨 공원의 설계에 도입하면서 부터이다. 폴리는 21세기 새로운 건축적 유

형으로 재해석되어 현대건축에서도 자주 등장하게 되었고, 승효상은 2011년 광주에 한국형 폴리의 도입을 추진했다. 광주폴리 I에서는 국내건축가 3팀과 피터 아이젠만, 도미니크 페로 등의 유명 국외건축가 8팀이 참여했다. 여기서 건축가들의 폴리는 광주의 장소성을 복원하기 위한 포인트 역할을 건축조형물 형태였다. 이에 반해 독일건축가 니콜라우스 히르쉬(Nikolaus Hirsch)가 총감독을 맡은 광주폴리II에서는 건축가의 작업이라고 여겨졌던 폴리에 독특하게도 예술가 및 인문학 관련 전문가들이 건축가들과 함께 작업을 진행했다.

광주폴리II에서는 건축가 램 쿨하스와 소설가 잉고 니어만의 <투표>와 국내건축가로는 신진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한 폴리 작품 공모전의 수상자인 고석홍과김미희의 <기억의 상자>가 비교된다. 두 작품 모두 골목거리와 지하상가라는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 설치되었지만, 장소보다는 시민들의 참여에 그 의미를 두었다. <기억의 상자>는 광주 시민들의 추억과 의미가 담긴 물건들을 전시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반면에 <투표>는 예술장치를 통해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의도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과 건축적 고안을 융합한 작품이다. 광주폴리 I과 II 두 사업 모두 건축가만 참여해서 진행했지만 폴리 작품들은 실제적인 건축 설계 작업보다는 시설물 디자인과 설치 미술의 성격이 강했다. 이 사업을 통해 건축가는 대중에게 건축 설계 이외에도 정치, 사회, 문화, 예술의 영역이 결합된 공공미술 작업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3.4. 마을미술 프로젝트의 건축 작품 특징



a) 시:집프로젝트 b) 제주돌담

<그림 6> 2013 마을미술프로젝트 참가작품

정부가 추진한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전국을 대상으로 주로 문화 소외 지역인 지방의 시골 마을에 집중되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표 하에 신축보다는 벽화와 조형물 설치, 기존 시설물의 정비로 이루어졌고, 건축가는 주로 오래된 가옥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건축가 김지호의 <빈집 갤러리 마루>, 와이즈건축의 <바람의 카페>, 설치작가 손몽주의 <새장의 새>는 모두 2013 마을미술프로젝트 행복프로젝트 '영천 별별 미술마을 - 신(新)몽유도원도'의 설치작품들로 폐가를 활용하여 마을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관람객과 마을 주민간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작품들이다.

2012 마을미술프로젝트-행복프로젝트 '유토피아로'에 참여한 작가들 중 건축가 유한집의 구조물 <시:집 프로젝트>와 설치미술가 이승택의 <제주돌담>은 제주도의 지역성을 상징하는 제주도 현무암을 재료로 사용한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시:집 프로젝트>에서 건축가가 계절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작품의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 철망 구조물 내부에 담쟁이와 같은 식재를 사용한 것과 달리 <제주돌담>에서 조각가는 돌담에 부분적으로 초록색 아크릴 물감을 입혀 오래된 이끼가 낀 것처럼 인위적으로 연출한 차이점이 있다. 건축가 김종대의 <유토피아 커뮤니티 센터>도 낡은 주택을 리모델링한 작품이다. 건축가는 도로에 면한 전면부의 일부에 제주 화산석으로 만든 돌담을 설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제주도의 지역성을 드러냈다.

3.5. 광주사직공원 프로젝트의 건축 작품 특징



a) 빈 집 b) 흔적

<그림 7> 광주사직공원공공예술프로젝트 참가작품

광주의 중요한 역사지인 광주사직공원을 문화 교류의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작된 이 사업은 공원 내의 부지와 노후화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했다. 건축가들은 사직공원의 생태공간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공간적 특성과 역사적인 맥락 등을 활용한 시설물 및 공간 디자인 작품들을 선보였다.

건축가 조민석의 <빈 집>은 전통한옥과 같은 중정형 공간 구성을 가진 파빌리온으로 흰색 원통 안에 사직단과 동일한 크기의 사각 공간이 삽입된 구조로서 새로운 공간 체험을 선사한다. 건축가 박동준의 <흔적>은 잊혀져가는 관리사무소를 공원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기존 기능은 유지하면서 리모델링한 작품이다. 건축가는 전면부에 기존 시설과 대비되는 스테인리스 강판의 유선형 캐노피를 설치했는데, 이 하부 부분이 휴식공간이 되면서 일종의 외부 전시공간도 될 수 있도록 의도했다.

박동준의 <흔적>과 같이 건축가들은 그들의 공공미술 작품이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쓰이기 위해 지붕이 있는 구조물을 고안하기도 했다. 이런 다목적 인 공간의 쓰임새가 있으므로 해서 지역공동체와 관람객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활기 있는 공간이 되고 대중의 호응도 좋아진다고 볼 수 있다. 건축가 신희원의 <흐르는 풍경>은 옛 수영장 부지

의 스탠드를 지붕이 있는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변모시킨 작품이다. 김영준의 <스텝>은 도로 절개지에 위치한 계단 구조물로서 다양한 레벨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이 다층의 공간 위에서는 소공연, 베틀시장, 야외 갤러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수용할 수 있다.

3.6. 도시공원 예술로의 건축 작품 특징



a) 홍티둔병 프로젝트

b) 소행성 G

<그림 8> 도시공원 예술로 프로젝트 참가작품

‘공공장소 속의 미술’형 사업으로 일상의 도시공원을 예술과 접목시키는 취지의 이 사업은 네 팀의 기획자가 하나의 공원을 맡아 경관설계 및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참여 건축가로는 <홍티둔병 프로젝트>의 기획을 맡은 와이즈건축과 <소행성 G> 프로젝트의 협업 파트너로 참가한 건축가 최춘웅, <차이를 위한 산책>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금암근린공원 내 생활체육시설인 <컬렉티브 스윙>을 디자인한 SOA가 있다. 와이즈건축의 <홍티둔병>은 ‘장소의 기억’을 주제로 하여 역사적인 장소성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둔병’공간을 공원의 상징적인 요소로 채용했다. <소행성 G>는 금성 배수장을 새롭게 장소화(topos)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이 머물면서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조건을 수평적인 경험 즉 ‘걷기’ 행위에서 찾았다. 두 프로젝트는 모두 장소성에 의미를 두었지만 <홍티둔병>이 그 땅에 이미 중첩되어 쌓여있던 실제 장소성에서 출발한 것과는 달리 <소행성 G>는 그 땅에 새로운 장소성을 구축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디자인 개념을 잡았다.

3.7. 자연과 미디어 에뉴알레의 건축 작품 특징



a) 사랑당

b) 바람이 들려준 이야기

<그림 9> 자연과 미디어 에뉴알레 2013 프로젝트 참가작품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새로운 예술담론 생산과 융복합 예술의 창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융복합공동기획프로젝트’¹¹⁾를 추진했다. 본 사업의 일환인 자연과 미디어 에뉴알레는 건축, 예술, 과학 세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

하여 일 년에 한번 제주도에서 비, 바람, 열, 습도 등의 자연 현상과 미디어를 주제로 표현할 수 있는 공공미술 작품을 제작하는 프로젝트이다.

네임리스건축, 랜덤웍스, 광성조의 <풍류>는 제주의 바람을 활용한 작품이다. 정육면체의 프레임에 한 면에는 제주도의 자연석들이 꽃혀져 있고 반대편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판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관람객은 바람에 의해 반사판들이 돌아가며 발생하는 생성되는 에너지를 시각적, 청각적으로 경험한다. 건축가 하태석과 예술가 권병준, 과학자 김대희는 제주도의 민속신앙인 당 신앙을 바탕으로 <사랑당>을 설치했다. 철제 파이프를 엮은 형태의 구조물은 전기가 없이도 생물발광 미세조류를 활용하여 빛을 발하는 자연조명 파빌리온으로 쓰인다.

건축가 양수인과 예술가 에브리웨어, 과학자 김호영은 제주의 바람을 활용한 녹풍(錄風) 기구인 <바람이 들려준 이야기>를 제작하였다. 이들은 바람이 부는 현상 자체를 기록해서 새롭게 음악으로 재구성하는 기구를 제작했다. 와이즈건축, 박진우, 양현경의 <탕>은 제주도의 해안가에서 담수가 나오는 샘물인 용천수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물탱크에서 반투과성 분리 막으로 민물과 바닷물의 삼투압을 이용한 위치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만들고, 그 에너지를 이용한 조명기구를 설치했다. 건축가인 와이즈건축은 과거 용천수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쌓았던 돌담을 원형의 돔으로 재현했다.

3.8. 에이피맵(APMAP)¹²⁾의 건축 작품의 특징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은 2013년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작업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대미술 릴레이 전시를 시행했다. 이 사업은 개최되는 장소의 특성에 맞추어 매번 새롭게 기획되는데, 야외전시의 성격이 강하다. 참여 작품들은 예술성이 강하고 실험적인 성격이 주를 이룬다.



a) air-cup

b) 징검다리

<그림 10> 에이피맵 2014 참가작품

에이피맵 2014 제주도 서광다원에 설치된 건축가 김찬중의 <Air-cup>과 조각가 정소영의 <징검다리>는 두 작품

11) ‘융복합공동기획프로젝트’ 사업의 프로젝트는 3가지로 여러 장르의 예술가들과 인문학자들이 모여 실제 공간에 구현 가능한 건축적 서사물을 설계하는 프로젝트인 ‘확장된 개념의 경이의 방’과 다원 예술의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탐구하는 ‘융복합 예술 R&D 프로젝트-확장하는 다원예술’, 건축과 예술, 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공미술 작품을 제작한 ‘미디어 에뉴알레’가 있다.

12) Amorepacific Museum of Art Project

모두 녹차밭 가운데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주변 경관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Air-cup>은 컵 모양의 작은 전망대로서 방문객은 위로 솟는 나선형의 좁은 램프를 따라 오르는 동안 흰색의 가는 철봉 사이로 투과되는 바람과 풍경 등을 경험한다. 반면에 <징검다리>는 차나무 위로 걸을 수 있는 흰색 발판 구조물로서 이 부정형의 징검다리를 건너보면 자연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새로운 체험을 의도했다. 두 작품 녹차 밭이라는 특색 있는 환경 체험을 의도했는데, 특히 건축가의 작품인 <air-cup>은 계단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통해 3차원적으로 확장되는 새로운 공간 경험을 주고자 시도했다.

이와 같이 건축가는 계단, 지붕 등과 같은 건축적 요소를 활용하여 풍경 체험이라는 공간 경험적 기능과 조형물로서의 미적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켰다. 건축가 SOA의 <25계단>도 제주도 서광다원에 설치된 풍경 체험을 위한 구조물이다. 거울로 된 정육면체 25개 계단은 제주화산쇄석으로 뒤덮인 바닥과 주변 녹차 밭의 경관을 거울 면에 반사하며 주변의 풍경을 확장시킨다. 이외에도 건축가 AnLstudio는 <Solidification> 작품에서 산업 재료인 호스와 파이프를 이용하여 그로인 볼트를 구축했다. 세 개의 큰 개구부를 가진 구조물에서 파이프 사이의 공간은 외부로 활짝 열려있으면서도 삼각형의 천이 덧대어져서 내부에는 그늘진 휴식 공간이 형성된다.

3.9. 소결: 국내공공미술사업의 건축 작품의 경향

공공미술 사업에서 국내건축가가 작업한 공공미술 작품을 작품의도, 작품내용, 작품표현으로 항목을 나누어 분석했고, 다음과 같은 경향을 파악했다.

첫째, 작품 의도의 관점에서 보면, 상상적이거나 추상적인 작품을 주로 설치하는 타 예술가 집단에 비하여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그들의 미술작품의 방향을 설정할 때에 '장소 특정적 (site-specific)'¹³⁾ 속성을 기본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다. 건축가들이 주안점을 둔 장소의 타입으로는 역사성이 있는 장소, 기억과 추억의 장소, 주변 풍경이 열린 장소가 있었다. 역사성이 있는 장소에서 건축가는 재해석 또는 재현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조민석은 <빈 집>에서는 사직공원에서 주요 장소인 사직단과 인접한 장소성을 강조하여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 마당을 파빌리온 내부에 복원했다. 기억과 추억의 장소에서 건축가는 그 흔적들을 남기거나, 기념품들을 수집하여 전시하거나, 회상할 수 있는 장치를 놓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박현진은 난곡 공원에 자리한 <하늘아래 첫 동네>

에서 과거 난곡 일대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달동네의 모습을 흰색 철골 프레임과 목재를 사용하여 재현했다. 자연적 풍광, 도시적 풍경 등 주변 풍경이 열린 장소에서 건축가는 멋있는 풍광이 환경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SOA는 <25계단>에서 거울로 된 정육면체 25개 계단을 설치하여 서광다원의 풍광을 거울 면에 반사하며 확장하는 효과를 의도했다. 이 외에 건축가는 장소 자체에서 좋은 조건을 찾기 힘든 경우에는 미술품의 설치를 통해 새로운 장소적 정체성을 부여하려 했다. 조민석은 <오픈 파빌리온>의 설치장소가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공원 내의 공간이란 점에 착안하여 외부지향적인 전통의 정자와 대비되는 아파트 거실과 같은 내부지향적인 새로운 타입의 현대적 정자로서의 파빌리온을 선보였다.

둘째, 작품 내용의 관점에서 보면 건축가들은 타 예술가 집단에 비하여 실용적인 구조물을 많이 제작했고 여기에 쉼터(shelter: 피신처) 기능과 다목적 기능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건축가들은 공공 미술작품으로서 평상, 벤치, 버스 정류소, 전망대, 지하도, 계단, 다리, 담장, 문 뿐 아니라 임시 전시장, 카페,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 리모델링도 했다. 건축가는 평상, 벤치, 계단, 다리와 같은 단순한 구조를 설치할 때에도 지붕, 돔, 캐노피 등의 구조체를 덧붙여서 어느 정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거주 본래의 의미인 쉼터의 기능을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이렇게 조성된 공간이 주목적인 휴식이나 임시전시 공간 외에도 건축가는 소공연, 베품시장, 집회장, 야외 갤러리 등으로 변모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의 여지를 두었다. 건축가 승효상의 <푸른길문화쉼터>은 다리에서 공원으로 직접 연결하기 위해 쓰인 계단 구조물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문화 활동이 가능한 폴리 구조물이다. 이 계단의 상부는 소규모 공연을 위한 객석 및 집회장, 모임과 휴식을 위한 공간이 되며, 다리 하부는 거리 갤러리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미술 사업에서 건축가는 지역공동체와 관람객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조형물 중심의 단일한 관람 행태에서 벗어나 '공공장소 속의 미술(Art in Public Places)'로서 공공 장소의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작품 표현의 관점에서 보면 건축가들은 타 예술가 집단에 비하여 형태, 재료, 색상 측면에서 건축적 요소를 적극 도입하고, 자연친화적, 재활용적, 주변 맥락적인 경향이 있었다. 우선, 미술품의 형태에 있어서는 플랫폼, 벽, 담장, 지붕, 계단, 다리, 골조, 벤치, 컨테이너, 파빌리온과 같은 건축적 요소를 적극 채용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건축가는 미술품들의 재료로서 인공적인 재료보다는 건축에서 주로 쓰이는 목재, 철재, 석재, 콘

13) 장소 특정적 미술이란 용어는 1970년대 중반에 지방 및 중앙의 공공 미술기관들이 장소 특정성을 프로그램 내의 의무 규정으로 포함시키면서, 미술가들이 공공공간들을 만들거나 개조할 때 건축가와 협업하는 디자인 팀 형태의 작업 방식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권미원, '장소 특정적 미술,' 현실문화, 김민규 외 옮김, 2013, pp.17-18

크리트, 벽돌을 많이 썼고, 기존에 그 장소나 근처에 있던 재료를 재활용하거나 주변의 자연 요소를 작품의 일부로 수용하려는 경향도 있었다. 예로서 김영준의 <스텝>은 도로 절개지에 위치한 계단 구조물인데, 건축가는 이 작품이 있는 곳에 기존에 서있던 나무를 작품의 일부로 간주하고 슬래브에 오프닝을 내어 그 나무를 그대로 유지시켰다. 헬렌박 또한 외벽과 내벽 사이에 있는 기존의 나무와 경사진 대지를 그대로 유지한 채 <장소성/비장소성>의 구조체를 구축했다. 유한짐은 <시:집 프로젝트>에서 담쟁이를 철망 구조물내부에 심어서 작품의 일부로서 계절의 변화를 표현했다. 이런 자연친화적인 성향으로 건축가들은 인공적인 색상을 쓰기보다는 재료의 자체의 거친 질감, 구축방식, 조립 방식, 직조 방식 등을 드러내려는 경향이 있다. 작품표현에 있어서 자연친화적, 재활용적, 주변 맥락적인 건축가의 미술작품 경향은 공공미술 작품이 대중들에게 친근감 있게 일상생활의 일부로서 자리 잡는 데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건축가들은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전송, 광고판, 몽타주, 착시, 풍력 및 수력 에너지 이용 등 여러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새로운 공간 체험으로 대중들을 유도함으로써 공공미술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4. 결론

국내 공공미술 사업의 건축적 경향과 건축가가 기여한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건축가가 가장 많이 참여한 공공미술 사업은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로서 건축가는 여기서 정류장, 지하도, 지하철 환승로, 교문, 휴게 공간 등 일상적인 가로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기존의 감상만을 위한 오브제 형태의 단절된 예술 영역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속의 예술적인 공간체험을 대중에게 제공했다. 오브제 형태를 넘어서서 색다른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공장소의 명소화와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국내 건축가가 그 다음으로 많이 참여한 공공미술 사업은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이나, 이 사업은 국내 건축가보다는 1회부터 알바로 시자, MVRDV와 같은 해외 유명 건축가를 초청하여 국제적인 홍보효과를 거두었다. 문화예술을 통한 관광 부가가치의 창출을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는 피터 아이젠만, 도미니크 페로, 램 쿨하스 등을 초청한 광주폴리도 있다. 공공미술 사업에서 해외 유명 건축가들은 좀 더 실험적이고 타 분야와 협업하는 융합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 확대되는 새로운 장르의 공공 미술 영역을 선보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대표적인 지역 재생 사업으로는 마을미술프로젝

트와 광주사직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가 있다. ‘장소 특정적’ 속성이 강한 건축가들은 이 같은 재생 사업에서 다른 예술가들보다 리모델링에서 강점을 보여준다. 그들은 역사성이 있는 곳, 기억과 추억이 있는 곳, 주변 풍경이 열린 곳 등의 장소의 정체성을 파악하여 그것을 현재의 시점에서 새롭게 볼 수 있는 구축물을 고안했다.

넷째, 건축가들은 작품 내용에 있어서 타 예술가 집단에 비하여 실용적인 구조물을 주로 제작했고, 여기에 쉼터의 기능과 다목적 기능을 부여하여 지역공동체가 여러 형태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유의 공간을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건축가들의 작품표현에 있어서 자연친화적, 재활용적, 주변 맥락적인 경향은 공공미술 작품이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느껴지고 일상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데에 기여했다.

참고문헌

1. Malcolm Miles, 미술, 공간, 도시: 공공미술과 도시의미래, 학고재, 박삼철 역, 2000
2. 박삼철, 왜 공공미술인가 : 미술, 살 만한 세상을 꿈꾸다, 학고재, 2006
3. Suzanne Lacy,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 문화과학사, 2010
4. 신승수, 공공을 그리다, 시공문화사, 2012
5. 안양공공예술재단,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 미술, 건축, 디자인의 공공서, 안양공공예술재단, 2005
6. 안양공공예술재단, 제3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새 동네 열린 도시 안에서, 안양공공예술재단, 2010
7. 서울특별시 디자인기획담당관,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2007, 2008, 2009 :도시가 작품이다, 서울특별시, 2008, 2009, 2010 (3권)
8. 문화체육관광부, 2010, 2011, 2012 마을미술프로젝트, 2010마을미술프로젝트 추진위원회, 2011, 2012, 2014 (3권)
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공공미술 연례보고서, 2013
10. N. Hirsch, P. Misselwitz, Eui Young Chun, [Gwangju Folly II], Hatje Cantz Verlag GmbH & Company KG, 2013
11. J. Willett, Art in a City, Liverpool University Press, 1967, Revised in 2007
12.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미술기획경영연구소,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개선현황 및 출연기금 분배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13. 박슬기, “국내건축가의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논문, 2015
14. 양현미 (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 “공공미술 진흥사업 운영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9
15. 윤태진, “공공미술, 전환과 확장-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형을 모색하는 공공미술-사후 자료집(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학술 세미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0
16. 공간, 공간사, v.480(11), pp.130-148, 2007
17. 공간, 공간사, v.554(1), pp.16-23, 2014
18. 공공미술포털 웹사이트 <http://www.publicart.or.kr>
19. 광주폴리 웹사이트 www.gwangjufolly.org
20.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아카이브 웹사이트 <http://apap.or.kr>
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웹사이트 www.arko.or.kr

[논문접수 : 2014. 12. 31]
 [1차 심사 : 2015. 01. 26]
 [2차 심사 : 2015. 02. 05]
 [게재확정 : 2015. 02. 13]